

KIA 오키나와 캠프 ‘고졸 트리오’ 마운드에 새바람 예고

선수단 54명 출국...3월 9일까지
내달 11일부터 연습경기 13회
2군은 내달 9일부터 대만으로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KIA 타이거즈가 내달 1일 54명의 선수단을 꾸려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 돌입한다.

KIA가 27일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선수 명단과 연습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KIA는 오는 31일 오키나와로 출국해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킨 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는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4명, '주장' 김주찬을 필두로 한 선수 40명 등 총 5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신인들의 합류가 눈에 띈다.

KIA는 앞서 1차 지명을 받은 광주 동성고 출신의 '기대주' 김기훈의 캠프 참가를 예고했었다. 여

기에 박준표와 임기준이 각각 위 용종 제거술과 어깨 부상으로 캠프에서 빠지게 되자 또 다른 고졸 신인 장지수에 이어 홍원빈의 이름을 대신 명단에 올렸다.

그동안 KIA는 오버 페이스에 따른 부상을 염려해 고졸 신인 투수들의 스프링 캠프를 배제했었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는 '고졸 트리오'가 젊은 마운드 경쟁에 뛰어들면서 새 바람을 예고했다.

한편 캠프 첫 날 자체 흥행전을 갖고 몸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선수단은 이후 3일 혹은 4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캠프는 2월 11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실전 체제로 전환된다.

KIA는 야쿠르트전을 시작으로 주니치 드래곤스(12일), 야쿠르트(14일), 두산 베어스(16일), 히로시마 도요 카프(18일), 한신 타이거즈(19일), 요미우리 자이언츠(20일), 요코하마 DeNA베이스타즈(26일), 한화 이글스(28일), SK 와이번스(3월 3일), 삼성 라이온즈(3월 5일), 롯데 자이언츠(3월 6일), LG 트윈스(3월 7

일) 등 일본 및 한국 팀들과 13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2군 캠프 선수단은 내달 9일 대만으로 건너간다.

역시 캠프 초반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하게 되는 대만 캠프단은 연습 경기 일정에 맞춰, 오키나와행에 도전하게 된다.

◇2019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명단(54명)

▲코칭 스태프(14명) = 김기태 김민호 강상수 코우조 김중국 홍세안 김민우 이대진 서재용 김상훈 박종하 배요한 정상욱 고영득 ▲투수(20명) = 윤석민 양현종 터너 윌랜드 김윤동 임기영 한승혁 이민우 황인준 김세현 문경찬 고영창 박지훈 홍건희 이준영 유승철 하준영 김기훈(신인) 홍원빈(신인) 장지수(신인) ▲포수(3명) = 김민식 신범수 한준수 ▲내야수(11명) = 김주찬 이범호 김선빈 안치홍 최원준 류승현 유민상 홍재호 이창진 최정민 오정환 ▲외야수(6명) = 최형우 나지완 해철 베이커 박준태 이은홍 문선재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2019년 오키나와 연습 경기 일정

날짜	상대팀	장소
2월 11일	야쿠르트 스왈로스	우라소에 구장
2월 12일	주니치 드래곤스	차탄 구장
2월 14일	야쿠르트 스왈로스	우라소에 구장
2월 16일	두산 베어스	구시카와 구장
2월 18일	히로시마 도요 카프	코자 신킨 구장
2월 19일	한신 타이거즈	기노자 구장
2월 20일	요미우리 자이언츠	셀룰러 구장
2월 26일	요코하마 DeNA베이스타즈	기노완 구장
2월 28일	한화 이글스	고친다 구장
3월 3일	SK 와이번스	킨 구장
3월 5일	삼성 라이온즈	아카마 구장
3월 6일	롯데 자이언츠	킨 구장
3월 7일	LG 트윈스	킨 구장



김정숙 여사의 응원... '녹색 머플러' 매고 심석희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음달 1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막하는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심석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위로 편지와 함께 선물한 녹색 머플러를 착용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녹색은 심석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다. /연합뉴스

심석희, 새해 첫 금사냥 출격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대회 출전...독일 출국

쇼트트랙 심석희(22·한국체대)가 새해 첫 대회에 출격한다.

심석희, 최민정(성남시청), 임호준(한국체대) 등 남녀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은 내달 1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출전을 위해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떠났다.

출국 수속을 앞두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공항에 도착한 심석희는 동료 선수들과 이야기하거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담담한 표정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심석희는 최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고교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심석희는 용기 있는 폭로는 '체육계 미투'로 확산되며 정부의 엘리트 체육 개혁 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심석희는 폭로 이후 곧바로 대표팀에 복귀해 인천선수촌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송경택 대표팀 감독은 인천공항에서 최재진에게 "심석희를 포함한 선수들 모두 하나가 돼서 밝게 웃으며 준비했다"며 "묵묵히 훈련에 열심히 임했다"고 전했다.

송 감독은 "(조 전 코치 성폭행 의혹 폭로) 선수들이 더 믿는 계기가 됐다"며 "선수들끼리 소통도 잘 하면서 훈련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독일 5차 대회에 이어 내달 8~10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6차 대회까지 연이어 출전한다. 지난해 열린 2·3차 대회에서 각각 금메달 3개와 4개를 수확한 대표팀은 이번 5·6차 대회에서도 2·3차 대회만큼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전, 새로운 미래 Always KIA TIGERS

2019 캐치프레이즈 발표

KIA타이거즈가 '도전, 새로운 미래 Always KIA TIGERS'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새 시즌을 맞는다. KIA가 2019년도 캐치프레이즈

KIA "도전으로 새 미래 연다"

를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는 KIA 선수와 프런트 등 모든 구성원이 도전 의식을 갖고 구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야구 환경과 마케팅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며 팀의 미래를 설계하고, 선수

단과 프런트가 미래 경쟁력을 갖춰 꾸준한 강팀으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한편 캐치프레이즈 '도전, 새로운 미래' 글씨는 광주시립미술관장을 역임했던 최영훈 전 조선대 교수가 KIA의 선전을 기원하며 직접 써서 기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여자 테니스 '아시아 시대' 선포

오사카 나옴이 호주오픈 단식 우승...랭킹 1위 등극

오사카 나옴이(22·일본)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6250만 호주달러·약 500억원)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남녀를 통틀어 아시아 국적 선수 최초로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오사카는 지난 26일 호주 멜버른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페트라 크비토바(6위·체코)를 2-1(7-6(7-2) 5-7 6-4)로 꺾었다. 우승 상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32억 7000만원에 이르는 410만 호주달러다.

지난해 US오픈에 이어 최근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제패한 오사카는 28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위로 올라서게 됐다. 오사카의 현재 순위는 4위다.

지금까지 아시아 국적 선수가 남녀를 통틀어 테

니스 단식 세계 1위에 오른 적은 없었다.

여자는 2011년 프랑스오픈과 2014년 호주오픈 단식 우승자 리나(중국)가 2위까지 오른 것이 최고 순위고, 남자는 니시코리 게이(일본)의 4위가 기록이다.

아이티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오사카는 1997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이번 대회 우승으로 '차세대 테니스 여제'가 될 후보로 급부상했다.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한 것은 2015년 윌버던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이후 이번 오사카가 약 3년 반만이다. 당시 윌리엄스는 2014년 US오픈부터 2015년 윌버던까지 메이저 4개 대회를 연달아 석권했다.

윌리엄스가 출산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최근



여자 테니스계가 뚜렷한 강자가 없었지만 오사카가 최근 2개 메이저를 연달아 제패하며 윌리엄스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등장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준결승까지 6경기에서 서브에이스 50개를 훔쳐 여자 선수 가운데 최다를 자랑할 만큼 강력한 파워를 뽐냈다. 오사카 외에는 에이스 40개를 넣은 선수도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었다. /연합뉴스

류현진 "한화로 100% 돌아올 것"

서울서 팬 미팅... "올 20승·부상 안 당하는 게 목표"

"100% 돌아올 것입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진정' 한화 이글스를 향한 귀소 본능을 드러냈다.

화려한 2018시즌을 마치고 한국과 일본에서 2019시즌을 준비하던 류현진은 27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팬 미팅을 열고 모처럼 한국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현진은 2018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으나 구단의 웰리파이브 오퍼를 수락해 1년 더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다.

그는 "올해 중요한 시즌이다.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도 크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몸에 이상만 없으면 항상 자신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 충분히 잘 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각오를 전했다.

깃옷은 질문에도 유쾌한 답을 쏟아냈다. "한화로 돌아올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류현진은 "100%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류현진은 2006년 한화에서 데뷔해 2012년까지 간판 투수로 활약하다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라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 류현진은 "네.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씩씩하게 말해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는 2015년까지 다저스에서 동료로 지낸 '영원한 단짝' 후안 리베라를 꼽았다.

류현진은 "우리베가 가장 친했던 선수 같다.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원정 경기를 가면 항상 한국 음식이 있는 곳에 함께 갔다"고 기억했다.

올해 목표는 '20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류현진은 "20승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20승을 하려면 부상 없는 시즌을 치르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큰 목표를 잡았다. 작년 시상식에서도 20승이 목표라고 했는데, 변함없이 같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에 선발투수로 등판했던 류현진은 "월드시리즈 당시에는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안 했다. 디비전-챔피언십시리즈 때 더 긴장을 많이 했다"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 선발 등판 때 더 긴장했다"고 돌아봤다. /연합뉴스



류현진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MLB9이닝스(모바일 야구게임)와 함께 팬 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